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10일 (음력 3월 25일) 목요일

민주당, 컷오프 · 경선 반발 '탈당 도미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컷오프와 경선에 반발한 '도미노 탈당'이 본격화되면서 6월 분선거 대결구도와 판세에도 변수와 변화가 일고 있다.

9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권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부당한 컷오프"와 "불공정한 경선"을 이유로 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수 민주당 광산구정당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광산구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중심 '불공정 경선' 이유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당내 갈등 선거관세 영향 관심

청정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여론조사와 공천심사 면접 등에서 상위권에 올랐음에도 당 기여도 등 모호한 평가에다 당 정체성, 당적 이적, 음주운전 벌금,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후보는 경선에 진출시키는 등 '불공정 고부준 잭대'를 목격할 수 없어 탈당을 결행하게 됐

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동구청장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양혜령 예비후보도 전남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양 후보 역시 '불공정 경선'을 탈당 사유로 내세웠다. 그는 "2010년 시의원 경선 불복과 관련해 4년 전에는 해명이 받아들

여져 25% 여성 가점을 받았는데 이번엔 20% 감점됐고, 시장 후보 탈당전력 10% 감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결국 양혜령 죽이기 경선"이라고 반발했다. 양 후보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동구 지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컷오프된 임우진 서구청장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 검증이 지역 민심은 물론 민주당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 화살 적폐"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부역적 방천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경선 전 컷오프된 가운데 1996년, 1998년, 1999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보자가 당 후보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한 반발도 적잖은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임흥민 신안군수 후보가 구시대적 전략공천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군수 출마를 선언했고, 권오봉 광양시장 예비후보도 경선 불공정 등을 문제 삼아 민주당 옷을 벗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광양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경식 후보와 광양시의원 가 선거구 출마자 이기연 후보가 권리당원 100% 선거에 따른 갑갑이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반발이 드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오라가락하고 석연찮은 컷오프와 고부준 경선, 일반시민 선택권은 뒷전인 갑갑이 경선으로 후유증이 어느 정도는 예상됐지만, 단체장 후보들이 줄줄이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며 "끓어오른 당내 갈등이 선거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잦아진 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좌현 들린 세월호 9일 오전 목포시항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 예행 연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왕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는 9일 "나는 왕년에 사시미 태러도 당했다며 '주먹값' 하는 놈은 안 무섭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먹 폭행을 당한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지나가다 한 소리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자신은 "석공터도 당해 봤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그런 놈은 전혀 안 무섭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폭행당한 현장 인사를 지나다 자신의 "왕년"을 얘기한 것이다. 계단 밑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신 중인 천막이 자리잡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대표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진단 토론회 최후의 고음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길이었다. 홍 대표의 말에 김동철 원내대표는 "하하하" 하고 웃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김성태



홍준표



김성태

임성자 골드디움(주) 대표 '보성군민의 상' 수상 군 자주채원 확보기부문화 확산 공로 인정 오늘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서 수상

임성자(63.여) 골드디움(주) 대표이사 겸 (재)골드클래스문화재단 이사장이 10일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에서 '보성군민의 상'을 수상한다.

임성자 대표는 복내면 출신으로 남편인 박철홍 현 골드클래스(주) 대표이사사와 함께 2000년 11월 보성에서 첫 창업한 후 이듬해 사명을 리젠시빌산업(주)로 확정하고 본격 건설업에 뛰어 들었다.

이후 차례로 골드디움(주), 보광건설

(주), 골드종합건설(주), 보광종합건설(주) 4곳의 관계회사를 설립하며, 2016년 총매출 9,835억 원을 달성하고 2017년에는 1조 원 달성이 예상되는 중견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임 대표는 법인의 등록지를 본인과 기업의 고향인 보성군에 두고 법인세 등을 지속 납부하며 군 자주채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향 보성의 발전과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자립 지원 등으로 보성군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광주사회복지모금회 이사 소사이어티 회원 19호로 가입하면서 그해 5월에 먼저 가입한 남편 박철홍씨와 함께 부부로는 2번째로 회원 등록을 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보성군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보성군민의 상은 1975년부터 지난해까



임성자

지 43회에 걸쳐 총 64명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한 바 있다. 보성군은 지난 23일 '보성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골드디움(주) 대표이사 겸 (재)골드클래스문화재단 이사장인 임성자씨(63.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보성=인구일 기자



정남진장흥 한국한우
Jangheung Hanwoo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

